

신동기 박사와 함께하는

인문학으로 세상보기



옥타비아누스로부터 시작된 로마의 황제는 파르마나(Pax Romana)로 불리는 호전적 시대(96-180)를 정점으로 그 권위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 갈리아누스 황제(재위 253-268) 때는 군인이나 귀족들 중에서 황제를 참칭하는 자가 19명이나 나오는 하극상이 전개된다.

아우렐리아누스 황제(재위 270-275) 때는 황제가 광대한 국경과 경제력의 불균형 등으로 발생한 제국의 혼란을 '정신적 요소'로 해결하고자 '태양교'라는 종교를 들고 나왔다 황제의 의도에 의혹을 품은 세력들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재위 284-308)는 제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해결책을 제시한다. 바로 로마 제국을 1차 동·서 분할(284년)에 이어 다시 4지역으로 분할(293년)해, 2명의 황제(아우

구투스)와 2명의 부황제(카이사르)가 각각 분할 통치를 하는 방식이었다. 이때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거점은 로마가 아닌 소아시아의 니코메디아였다. 이때부터 로마는 제국 천년 수도로서의 영광의 빛을 잃게 된다.

황제 권위 하락과 로마의 쇠망

324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재위 306-337)는 4분할의 제국을 다시 하나로 합친다. 그리고 물리적 해결책이 아닌 '정신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속주국인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된 종교인 기독교를 로마 세계에 공인(313년)하는 것이었다. 다시 1인 황제가 된 콘스탄티누스의 수도도 로마가 아니었다. 그의 이름을 딴, 안전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 콘스탄티노폴이었다.

황제들의 물리적·정신적 해결책 제시에도 제국의 혼란은 종식되지 않는다. 발렌티니아누스 황제(재위 364-375)는 기존의 '기독교 공인'에 물리적인 '국도 2분할'을 더한다. 동로마, 서로마로 제국을 나누어 두 명의 공동 황제가 각각 다스리는 방식이었다. 황제는 동로마를 동생 발렌스 황제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서로마를 맡았다. 물론 이때도 더 이상 '로마의 영광'은 없었다. 황제는 서로마의 수도로 로마가 아닌 밀라노를 택했다. 시소나 국가나 한번 기울기 시작하면 그 움직

황제의 역사 (4)

임을 멈추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 '기독교 공인'이라는 정신적 해결책과 '제국 분할 통치'라는 물리적 해결책만으로는 기울어져 가는 제국을 바로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한 테오도시우스 황제(재위 379-395)는 기독교 공인을 넘어 '기독교 국교화' (392년)라는 강력한 정신적 해결책을 내놓는다.

그러나 기독교를 통한 로마 세계의 통합도 로마의 쇠망을 멈추게 하지는 못한다. 결국 서로마는 476년 용병대장 오도아케르에 의해 1,200여년의 역사를 마감하고, '황제' 역사 역시 503년(BC27-AD476)으로 마감한다. 물론 동로마의 황제 역사는 지속된다.

76년 중단된 서유럽 황제의 역사는 그로부터 324년이 지난 800년에 프랑크 카롤링거 왕조의 2대 군주인 샤를마뉴(재위 742-814, 별칭 카롤루스 대제, 카롤 대제)에 의해 다시 되살아난다. 아버지 피핀에 이어 2대에 걸쳐 바티칸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교황 레오3세(재위 796-816)가 샤를마뉴에게 서로마 황제의 관을 씌어준 것이다.

물론 샤를마뉴의 업적도 당연히 황제 칭호를 받을만 했다. 샤를마뉴가 차지한 땅이 유럽 대부분에 이르고 있어 300여년 전 서로마 황제의 지배영역보다 더 방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샤를마뉴가 황제의 관을 쓴 것

은 단순히 교황의 자신에 대한 호의 감사 표시나 샤를마뉴가 넓은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황제 대관 이벤트에는 보다 정치공학적 의도가 깔려 있었다. 바로 유럽의 권력 구도, 멀리는 유럽 너머 세계와의 권력 구도와, 세속과 종교의 현실적 상호 필요에 의한 세력 연합이라는 의미가 깔려 있었다.

헤라클리우스1세, 비잔틴제국 규정

동로마는 같은 유럽이고 기독교권이지만 사실 발렌티니아누스 황제의 동·서로마 분리 이후 서로 제 갈 길을 가고 있었다. 헤라클리우스 1세(재위 610-641) 때부터 동로마의 황제는 더 이상 임페라토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로 불리지 않고 그리스어로 황제의 의미인 '바실레우스'로 불리게 된 것처럼, 역사는 헤라클리우스 1세 때부터의 동로마를 유럽적이지도 않은 아프리카적이지도 않은 아시아적이지도 않은 정치·문화를 가진 '비잔틴제국'으로 규정하였다. 서로마와 분명히 구분되는 다른 문화를 갖게 되었다는 의미다.

/인문경영 작가&강사·경영학 박사

※출처: 신동기 저 '오래된 책들의 생각' (2017, 아틀라스북스)

사설

'도시철도 2호선' 시민들은 피곤하다

광주도시철도2호선건설이또다시 시끄럽다. 십수년 동안 논란을 거듭하며 갈등과 행·재정력 낭비만 거듭해온 터라 우려가 크다. 자칫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2호선 추진동력에도 약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앞선다.

민선7기 광주시 혁신위원회는 옛 국제 광주시공사에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반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경제성 등을 이유로 2호선 건설을 반대해왔다. 특히 민선7기 혁신위원회에 이 모임 대표가 참여, 배경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문제는 2호선 문제가 다시 공론화될 경우, 겨우 궤도에 오른 건설 문제가 또다시 논란에 휩싸일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지난 15년 동안 경험했던 소모적 논쟁의 되풀이는 물론, 행

·재정적 손실, 시민갈등의 요인으로 다시 자리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특히 민선7기 출범전에서 해묵은 문제로 논란과 갈등이 다시 불거질 경우, 민선7기 시정 전반에도 약영향을 줄 수 있음은 불문가지다. 무엇보다 현재 2호선은 차량 발주가 진행중인데다 254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집행됐다. 행정의 연속성 상실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 이용 시설 담당자는 건설 자체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혁신위 측도 "이번 토론회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해 다양한 시민사회 목소리를 들었는 의지일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될 경우, 겨우 궤도에 오른 건설 문제가 또다시 논란에 휩싸일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지난 15년 동안 경험했던 소모적 논쟁의 되풀이는 물론, 행

최악의 고용 쇼크... 대책 급하다

우리나라 고용 사정이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는 우려스런 소식이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7만2천 명 늘어나는데 머물렀다는 것이다. 이리다간 고용이 자칫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침담할 따름이다.

취업자 증가 인원 감소세는 멈출 줄 모르고 있다.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 10만 명대로 주저앉더니 지난달에는 10만 명 이하로 내려오고 말았다. 실업률 역시 4.0%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올라갔다. 청년 실업률은 10.5%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나 급상승했다니 한숨이 나온다.

고용 쇼크가 일어난 것은 자동차와 조선 등 제조업에서 8만여명 줄어든 탓이 크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감당이 안되는 상황으로 보인다.

내수가 위축되고 제조업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가장 크다. 올해 취업자 30만 명을 늘린다는 게 정부의 당초 목표인데, 이번 결과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앞으로의 상황도 좋아 보이지 않다는 점이 더욱 걱정된다. 경제성장률은 둔화하고, 주력산업들은 중국에 밀리며, 보호무역주의는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영향도 배제하기 어렵다. 도대체 어디서 해법을 찾아야 할지 답하다.

그렇더라도 이대로 손놓고 있을 순 없다.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과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정책을 제시한 후 이를 과감하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 말로만 하는 대책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만큼 종합적이면서도 세부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Jeonnam Daily, including phone numbers, fax, and email addresses for various departments.

독자투고

개정 도로교통법 속지 교통안전의 시작

올해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돼 시행되거나 시행 예정이다. 이에 개정된 내용을 잘 알지 못해 피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 달린 도로교통법을 속지하고 이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첫째, 주차장에서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운전자는 변상과 함께 최고 20만원의 벌금과 벌점 25점 부과 대상이 된다.

둘째,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시 확인 후 운행 의무화가 시행돼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반드시 차에서 내려 승차 여부를 확인한 후 출발해야 한다.

셋째, 자동차 법규위반 과태료 항목이 늘어나고 지정차로제도 간소화된다. 기존 9개 항목에 5개 항목(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해 위반, 오토바이 보도침범,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위반, 보행자보호 불이행)이 추가된다.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국민신문고에 고발하면 운전자가 출석없이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상철 구례경찰서 교통관리계장

넷째, 자전거도 안전도 착용이 의무화되며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원동기가 켜진 전기자전거의 보도 통행금지 및 적발 시 범칙금은 3만원이다.

다섯째, 오는 9월28일 이후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미납 범칙금 및 체납 과태료를 완납해야 한다.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 된다.

일부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숙지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관심을 갖고 달린 도로교통법을 꼼꼼히 체재해볼 일이다.

기고



이경숙 시인

결혼이란 좋은 약기를 구입한 것과 같다. 약기를 구입했다고 그것이 곧바로 연주 실력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 배워야 하는 기나긴 과정이 남아 있다. 연습은 주로 언제 어디서 할지, 어떤 계통의 음악을 공부할지를 선택해야 한다. 레슨을 갈 때마다 틀린 부분을 지적받아 고쳐야 한다.

젊은 부부가 상담자와 마주보고 한 대 화 내용이다. 부인이 상담자에게 약간 격한 말투로 던졌다. "이렇게 편파적이면 저는 더 상담 받지 않겠어요. 왜 선생님은 저만 문제라고 말씀하시나요? 저 사람도 문제 많다고요. 아니 전적으로 저 사람 문제예요. 그런데 저 사람 문제는 말씀 안 하시고 저만 문제라고 하시면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상담자는 중립을 지켜 잘 들어주어야 하는 것 아니가요? 제가 부부 상담

부부 갈등 클리닉

교사는 천한 종이 되어 버렸다. 피해자 증후군을 가진 사람의 마음엔 잘못에 대한 개념이 없다. 잘못에 대한 심리학 용어인 죄책감이란 개념은 추상적 개념으로서 어느 정도의 의식 수준에 올라야 형성된다. 그 수준에 이르면 자신의 잘못을 수용하고 행동을 고친다. 나아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자신의 잘못을 고친다.

결혼해서 출산까지 한 부모가 되었음에도 자신에게서 어떤 잘못을 찾아내지 못하거나, 남들의 조언을 지적이나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영아기에 고착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상담자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이 얼마나 정당함을 확인 받고자 하며, 상담자가 자기 배우자를 단번에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고쳐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무한테나 갈 수 없고 이른바 잘나가는 사람 즉, 방송에 나오는 사람이나 유명하다고 소문난 사람만 고집한다. 그러다 자기의 뜻과 맞지 않으면 상담자 또한 '천한 것'의 부류에 포함시킨다.

결혼하고 3년간 가장 많이 싸운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남녀가 맞추어 가는 과정에 그런 갈등이 당연하다. 그건 갈등이 아니라 조율 과정이다. 오케스트라 연주회에 가면 처음 들어야 하는 소리는 아름다운 음악이 아니라 줄을 맞추느라 깡깡 울려대는 소음이다.

잠시 쉬는 시간이면 어김없이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음이 틀린 상태로는 연주

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주자는 수시로 음을 맞춘다. 사실, 결혼이란 좋은 약기를 구입한 것과 같다. 약기를 구입했다고 그것이 곧바로 연주 실력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 배워야 하는 기나긴 과정이 남아 있다.

부부 갈등 설문에서 여자가 적어 놓은 모든 불만은 자신의 수준 미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을 뿐이었다.

아기를 낳아 양육하는 과정에서 왜 나만 고생하고 잠잠 못자고 애쓰고 있는 것이었다. 남편이 도와주고 있는 항목들을 들어 보면, 보통의 남자보다 몇 배나 자상하고 친절하고 가사일 도와주는 것도 몇 배나 잘하는 남자였음에도 여자는 불평만 가득했다.

남편은 꽤 좋은 약기였음에도 다루는 사람이 연습을 안했으니 연주는 고사하고 기본 음계조차 파악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2년전 겨울에 딸이 연주하던 첼로악기 목이 부러지는 일도 있었다. 공연 중 잠깐 휴식 시간이었는데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에 악기 목이 부러져 있었다.

악기는 계속 사용해야 했기에 당시 고물줄로 묶어 응급 처치 후 연주했고 집에 와서 전문 수리 센터에 의뢰했다.

결혼도 똑같다.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지만 고쳐서 사용하는 거다. 그럼에도 좋은 소리를 내는 악기처럼 부부관계도 그렇다.

기고



신광식

진도경찰서 읍내파출소 순경

요즘 '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가 뉴스에서 빈번히 보도되며 사회적 이슈로 오르내리고 있다. 가정폭력은 여러 번 들

폭력에 대해서는 생소할 것이다. 데이트 폭력은 말 그대로 부부가 아닌 남녀 간의 갈등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폭행, 상해, 살인,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등), 감금, 약취유인,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퇴거불응), 스토킹 등을 일컫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으로 입건된 피의자는 2015년 7,692명, 2016년 8,367명, 2017년 1만303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또한 서울시가 여성 2,000명을 대상으로 한 데이트폭력 실태조사에서는 88.5%인 1,770명이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하는 등 각종 자료에서 현재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에 대한 조치가 시급한

데이트 폭력, 인연에서 악연으로

때이다.

데이트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연인의 행동을 잘 살피고, 난폭한 기질 혹은 집착하는 징조가 보일 경우 단호히 거부한다. 그러한 행동을 조금이라도 수용하게 되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므로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행여나 폭력을 당하게 된다면 사진, 녹음, 문자 등 증거를 수집하여 긴급전화 112 혹은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신고한다.

이와 더불어, 경찰에서는 지난달 17일부터 8월 24일까지 100일 동안 '대여성 약성범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여 여성 상대 데이트 폭력을 포함한 각종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사안이 중대할 경우 구속수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보호

활동 또한 적극 연계할 계획이니 피해 여성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

'안전이별'이라는 단어를 들어봤는가? 시키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구타, 협박, 스토킹 등 행위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이별하는 것을 말하는 신조어라고 한다. 안전이별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감사함을 느낀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하니 데이트폭력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데이트 폭력을 범죄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것을 막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동시에 피해자를 구출 및 사후 지원은 물론, 각종 매체를 통한 꾸준한 홍보와 교육 등 데이트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고 즉각 시도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